

지역 내 문화 예술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회적기업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접하기는 소비자들에게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와 같은 행위자들에게도 활동의 범위는 제한적이거나 열악하다는 점이 현재 업계가 처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충남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을 쌓아가고자 노력하는 서천군의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의 최문성 대표와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 대표님의 요청으로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의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브랜드 공연화 그리고 창작공연, 음원, 무대, 영상제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최 대표는 인증사회적기업인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의 생성 계기에 대해서 서천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소재로 하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함께 고민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럼으로서, 지역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지역민들과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싶었음을 덧붙였다.

주로, 전문예술공연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공연음원 및 무대기술, 영상제작 등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단체 및 공공기관(학교 및 지역내 주민복지센터, 아동센터)과의 협약을 통해 예술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충남문화재단체들과도 연대함으로써 지역문화재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는 협동조합이 생긴 이후, 활동 중인 예술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술경험과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만족스런 부분으로 언급했다.

“공연창작 및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연과 관련된 음원, 영상, 무대, 홍보디자인 등 다양한예술분야의 영역에 도전하고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많은 예술가들이함께 활동할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의 공연 모습

그는 조합 내 관련된 활동 중,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했던 '문화동반자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해외 연주자들과 무용수들이 서천에서 같이 생활하며 공연창작과 워크숍을 통해 함께 예술을 교류할 수 있었던 경험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신나는 예술 여행”에 선정되어 서천의 문화유산과 콘텐츠라 할 수 있는 '한산모시'와 '임벽당김씨'를 소재로 한 공연을 진행 예정.전국의 학생들에게 서천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게 되어서 기대감이 크다며 이후, 문화 예술을 접하면서 한국의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의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문성 대표는 단순히 협동조합으로서 지역 내 문화 연결고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콘텐츠 제작에 있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비쳤다. 비대면콘텐츠 제작 및 해당 산업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대이므로, 기술을 접목한

문화콘텐츠의 제작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가진,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현 조합의 출발점이 되어 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잊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과 이를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뿐 아니라, 끊임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치있게 전달하고 활용하여 이를 지역민과 발전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창작해 나가는 것이 조합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